

대륙을 건너온 글쓰기

2001년 즈음, 대서양을 건너 특별한 사랑이 단신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 떠난 병이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도착했고, 병 속의 편지로 서로를 알게 된 둘은 서신을 교환하다 이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짝막하게 전해진 뉴스였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긴 힘들었지만, 최근에도 병에 담겨 대서양을 건너 편지가 있었다고 하니 조작된 기억이 아닌 건 분명하다. 그들의 이야기가 내게 특별히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관계가 ‘편지’에서 연유했기 때문이다.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어린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 머리로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까닭에서였다. 얼굴을 마주하고도 좁히기 힘든 사람 간의 거리가 글만으로도 극복된다는 말인가. ‘직접 해 봐야겠다.’ 그것이 ‘글쓰기’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당시 병에 편지를 담아 바다에 띄우는 것 대신 선택한 나의 현실적인 대안은 ‘펜팔’이었다.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온갖 사이트에 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사는 줄리아를 만났다. 나를 소개하고, 안부를 묻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사진과 글만으로는 서로를 충분히 알기에 부족했다. ‘진짜 친구’가 되는 데 열성적이었던 나는 그래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했고, 진심을 전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정말 ‘글’이 우리를 ‘진짜 친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라면, 소통을, 곧 글쓰기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써야 하는 보고서를 앞에 두고 무의미한 스트레스만을 받고 있을 때면, 그때 배웠던 것이 떠오른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줄리아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친구를 만들어 주었던 글쓰기에 대해서. 물론 편지글과 보고서는 다르다. 어렵지 않게

오현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쓸 수 있는 편지글과 달리 학문적인 글쓰기는 ‘학문적’이라는 것에서 한 번, ‘글쓰기’라는 것에서 또 한 번, 근접하기 힘든 이중의 성을 쌓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떤 글이든, 글은 진심을 담아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써야 한다. 그것이 줄리아와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로부터 배운 글쓰기였다.

참된 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진심은 진정성이라는 말과 같다고 본다. 내 글을 내 글답게 만들어주는 ‘진정성’을 글에 담을 때, 글쓰기는 ‘관계 맺기’의 즐거운 과정이 된다. 그리고 글의 ‘진정성’은 글에 대한 글쓴이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나탈리 골드버그는 『뺏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Writing Down the Bones*』라는 책에서 ‘글쓰기는 발견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글에는 쓰고자 하는 이야기거리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글쓴이가 발견한 그 화제와의 관계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를 발견한다는 것은 화제에 대한 나만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글을 쓸 때는 화제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므로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로컬 푸드에 대한 보고서를 쓸 때,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다녔던 이유는 이 ‘확신’ 때문이었다. 자료 조사를 통해 발견했던 나름의 관계가 실제로도 그러한지 확인해야 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자 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글쓴이의 입장에서 그 글은 진정성이 담긴 글이 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화제와의 관계 맺기, 즉 글쓰기가 더 즐거웠다.

글쓰기에 진정성이 부여되었다면, 다음은 표현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펜팔에서 배운, 좋은 표현은 ‘쉽고 재미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청중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듣지 않으려는 청중이 기꺼이 듣도록 해보라.” 독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읽지 않으려는 독자를 읽도록 하기 위한 나의 전략은 ‘쉽고 재미있는’ 표현이다. 물론 독자의 관심을 끄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주제 선정에 제한을 두게 되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의 화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한비야씨의 글을 들 수 있다. 그는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의 역할 모델이다. 쉬운 글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된 그의 메시지는 온 국민을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다보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전보다 글쓰기가 어렵지 않고, 글의 흐름도 매끄러워진다. 하지만 다독(多讀)은 어려운 글을 쓰게 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한 문장을 길게 늘인다든지, 쉬운 말을 두고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것이다. 이는 나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와 소통의 정도를 제한한다. 읽기 어려운 글

을 쓴다면,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은 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작일 것이다. 또한 복잡한 글은 나의 진정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오해를 살 뿐이다. 그러므로 내 글이 가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쉽고 재미있는 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에 입학 후, 첫 보고서로 한참을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처음이었던 지라 ‘학문적 글쓰기’라는 말에 잔뜩 겁을 먹었던 것 같다. 형식과 과정만 조금 다를 뿐, 진심을 담는다는 점에서 모든 글쓰기가 같다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줄리아에게 썼던 편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이 글을 쓰며, 지난 날 줄리아와 주고받았던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봤다. 편지를 쓸 때면, 글을 준비하고 쓰는 과정 모든 순간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던가. 글이 곧 소통이었기에, 짧은 글을 읽어도 그 내용과 과정, 그 순간의 느낌까지 생생히 재현되는 것 같다. 그리고 써야 하는 글에 대한 스트레스로 종종 잊곤 하는 ‘글쓰기의 즐거움’을 다시금 만끽한다. 2002년 12월 오스트리아의 직인이 찍힌 줄리아의 편지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종종 너게 처음으로 편지를 받던 그 날이 떠올라. 열닷새나 걸려 날 찾아온 네 편지와 처음으로 마주하던 그 기분이란. 정말 신났어.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 여기 내 사진을 편지와 함께 보내. 너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이야. 좋아했으면 좋겠다.” 어떤 글이든 의미를 담으려 노력하기에, 내게 그 글을 내놓는 것은 무척 떨리는 일이다. 글쓰기와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읽었던 책을 찾아보고 옛 편지도 꺼내보았다. 부디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내 글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제12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주 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자 격]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 상] 2010년 1학기 및 여름 계절학기 전공 및 교양 수업 리포트(핵심교양, 졸업논문 제외)

[응모 기간] 6월 중순 ~ 7월 중순(홈페이지 공지 및 전체 메일 알림)

[심사결과 발표] 2010년 9월 1일(화)

[상 금]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5명: 20만원

[응모 방법] 응모 기간 동안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

‘우수리포트 공모전’ 배너 통해 접수